블루 이코노미 선도…전남 곳곳 잇고 '도민 행복' 짓는다

전남개발공사

전남도 산하 유일한 지방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가 올해로 설립 19년째를 맞으면서 최고의 성과를 내고 있다. 전남도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4년 설립된 전남개발공사가 7년 연속 흑자 경영을 달성한 것이다.

특히 공익과 수익이 조화를 이루는 공기업의 성공 모델이 되기 위해 택지개발, 산업단지 등의 개발사업과 공공시설물 건축, 국제자동차 경주장 운영 등의 공공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면서 무엇보다 주목을 받고 있다. 또 정부의 2030 에너지 정책과 전남도 블루 이코노미에 부응함과 동시에 지역의 비교우위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산업에도 공사의 역량을 집중하며 지역의 미래를 밝히고 있다.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 배려, 지역공동체 복원 등 공적인 역할에도 최선을 다해 '도민 행복'이라는 설립 취지를 이행하면서, 공사 내에 주민참여위원회를 운영해 도민과 상생하는 경영에도 노력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 공사가 설치한 3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운영수익의 일부를 체육시설 재정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공사는 비교우위를 지닌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전남도가 추진하는 블루이코노미 실현을 위해 해상풍력단지를 발굴해 개발하고 민간자본도 유치할 방침이다. 사진은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에 앞서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4.3MW 규모의 영광 약수 해상풍력발전의 이미지.

대대적 체질 개선·경영혁신 노력 역대 최대 실적 7년 연속 '흑자경영'

태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추진 생태도시 조성 등 지역개발 앞장

지역사회 사회적 가치 실현 앞장 2020년 경영평가 전국 1위 달성

◇개발공사 창립 이래 최대 실적 달성=김철신 사장 취임 이후 공사 내 소통 시스템 구축, 사업 구조 및 조직 개편 등 대대적인 체질 개선과 경영 혁신 노력으로 전남개발공사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지난 2018년 당시만 해도 높은 부채 비율과 열악한 사업 여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경영평가 등급의 하락, 흑자 유지 실패 등이 예견되고 있는 실정에서 김 사장은 조직개편을 통한 생산성 향상, 관광사업장 매각으로 재무건전성 확보, 개발 및 분양전략 고도화 등 자구 노력에 나섰다.

그 결과 매출액, 영업비익, 당기순익 등 수익성 지표가 눈에 띄게 향상됐다. 취임 첫해인 2018년 142억 원이었던 순이익이 2019년 337억 원, 2020년 559억 원, 2021년 391억 원으로 창립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7년 연속 흑자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부채는 2018년 5,173억 원으로 부채비율이 94%에 달했으나 2021년 말에는 3,697억 원(53%)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 전국에서 가장 풍족한 전남지역 재생에너지 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통해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과 전남도 '블루에너지 정책'을 선도하고 있다. 지역 산업 기반 확충, 지역상생 일자리사업 참여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켰다는 점을 인정받아 지난 2019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 등급, 2020년도 경영평가에는 '최우수' 등급으로 전국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체계적인 경영 관리와 내부 시스템 강화는 각종 기관 평가에서 전국 1위와 최우수등급 수상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일자리 창출, 예산 신속 집행 등 7회의 대외 포상을 받고,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및 공정 채용 부문에서 5차례의 대외 인증을 받았다. 이 외에도 고객만족도 1위, 자체감사활동평가 최고등급 등에 5차례 선정되는 등 공사의 대외 공신력도 크게 높아졌다.

◇전남 곳곳을 잇고 도민 행복을 짓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공사는 지금까지 도청사와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에 필요한 부지를 제공하기 위해 남악신도시와 나주빛가람혁신도시 같은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최근 이 같은 대규모 개발의 수요가 감소하면서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중소규모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개발 필요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개발에 나선 것이다.

현재 추진 중인 개발 사업은 오룡지구, 여수 죽림1지구, 담양 보촌지구, 광양 덕례도월지구 등이 있다.

명품 친환경 생태도시로 조성중인 오룡지구는 2020년 7월 1단계 사업을 준공, 올 2월말 기준 3,188세대 약 9,753명이 거주하고 있다. 현재 80%의 공정률로 2024년 사업 준공을 목표로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이다. 여수 죽림1지구개발 사업은 현재까지 25% 종합공정으로 토지 보상 완료 후 기초공사를 비롯한 주요 옹벽구조물, 기타 부대공사를 순조롭게 추진중이다. 2023년 하반기 착공 예정인 '담양 보촌지구'와 2025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는 '광양 덕례도월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인·허가관련 행정협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공사는 22개 시·군과 협력, 지역별 현안사항과 핵심가치, 연계협력 사업 등 분석을 통해 전남도내 정주여건을 향상시킬 새로운 도시개발 사업을 검토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 맞춤형 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지방공기업의 공익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사업 역량 집중…미래먹거리에도 주목=미래 안정적인 경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비교우위를 지닌 신재생에너지 자원을 바탕으로 전남도가 추진하는 블루 이코노미 실현을 위한 해상풍력단지 발굴 및 개발, 민간자본 유치 등에 나설 방침이다. 먼저 신안 해상풍력단지 1단계 사업에 400MW 규모로 참여하고 있다.

공사는 1년간의 풍력자원 조사를 실시해 얻어낸 유효 데이터를 근거로 2023년 발전사업 허가 취득을 위해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다. 영광 안마도 해상에는 '국가해상풍력 단지개발 R&D' 결과를 바탕으로 224MW 규모에 10%의 지분 투자를 고려하고 있으며, 2023년 착공을 목표로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중이다.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개발에 앞서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인 4.3MW 규모의 영광 약수 해상풍력발전 사업은 올해 착공해 하반기 상업 발전에 나설 예정이다.

태양광 부문에서는 구례 섬진강어류생태관 유휴부지에 500kW 규모로 '1호 도민발전소'를 설치, 현재 상업운전 중이며, 발생된 수익의 절반은 매년 전남인재육성 장학기금으로 기탁한다. 또 지난 2018년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에 3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운영수익의 일부를 체육시설 재정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장흥 산업단지 내에도 3MW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올 상반기 준공한다.

◇사회적 가치 실현 앞장서며 도민 행복에 기여하는 열린 공기업=김 사장 취임 이후 공사는 수혜자 중심의 도민친화형 사회공헌 추진체계를 정립했다. 공사 운영 시 주민참여 기회 확대, 공정성·투명성 확보, 지역밀착형 사회공헌 사업 추진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3년간 지역사회 공헌 관련 예산과 목표를 매년 상향 조정하면서 지난해 총 83개소의 복지시설을 위문하고, 수해복구, 농어촌마을봉사, 재능기부 사업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 직원 1인당 20시간씩 봉사했다.

또 고군분투하고 있는 지역인재들을 위해 2020년과 2021년 전남미래인재육성을 위해 장학금 50억 원을 기탁했으며, 지방공기업 최초로 사회적 약자기업 가산점 부여, 사회 소외계층 기부실적 우대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계약 제도를 개선하기도 했다.

도내 섬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는 생활 SOC 전자도서관(J-Book)을 오픈, 학생들이 편하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억 원 규모의 '전남행복동행펀드'를 출범시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에 나서고 있다.

한편, 공사는 지난 2020년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 중 최초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 인증을 취득했다. 건설현장 내 자율안전보건체제 확립을 위한 위험성평가, 위험작업 사전허가제와 같은 재해예방에 나서고, 정기적인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도 실시중이다. 올해부터 시행중인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전직원 및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감대 마련에도 나섰다. 공사에서 추진중인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2만 시간 무재해를 달성했으며, 올해 행정안전부의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 취득에 나설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직원·도민들과 소통으로 다양한 성과 이뤄 전국 최초 '사회적 가치 실현 계약제도' 도입

김철신 전남개발공사 사장

김철신 사장이 지난 2018년 9월 10일 취임한 이후 가장 강조한 것은 소통이다. 직원들과 격의 없이 말을 섞고, 귀담아 들은 다음 경영에 반영하고 있다. 처음에는 어려워했던 직원들도 스스럼없이 의견을 건네고, 논의를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공사 내부의 커뮤니케이션의 질이 크게 높아졌다. 조직원이 만족하지 못하는 조직에서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그의 강한 신념은 4년간 조직을 긍정적으로 바꿔놨다.

다음은 일문일답.

-소통을 강조해왔다.

▲잘하고 있는지 걱정은 되지만 소통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했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하고 있다. 사장실을 직원들이 편하게 들릴수 있는 사랑방으로 운영하고, 매월 2차례 노조원들과 치맥데이를 하면서 조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행했다. 직원들의 다양한 혁신적인 생각을 수렴하고 실행함으로써 지금의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

-직원 내부만이 아니라 도민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였다.

▲당연하다. 지방공기업인 전남개발공사의 수요자는 도민이다. 수요자를 감안한 정책은 거스를 수 없는 추세다. 도민들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소통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주민참여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19년도에 처음 시작했는데, 올해 4월 제3기 주민참여위원회가 발족했다. 18개 시·군 총 51명으로 구성됐는데, 사업·정책·혁신·공감 4개 분야에서 성과보고회, 사업설명회 등으로 다양한 활동을 공유하며 투명한 정보공개와 도민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다. 또 뉴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고, 온라인 공간에서의 도민 참여와 소통을 위해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 채널도 운영중이다. 주민참여 제안, 혁신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 유일 공기업으로 도민 기대치가 높다.

▲지속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데 임직원이 앞장서고 있다.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사내 봉사단체인 '나눔이 봉사단'을 꾸려 활동하고 있다. 지역 내 복지시설 위문활동, 아동보육시설 환경개선, 수해지역 복구활동 등 코로나19로 위기에서도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다. 지난 2020년에는 지역의 미래인재 육성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전남인재육성기금 50억원을 기탁했는데, 정말 마음 뿌듯했다. 공기업이 돈을 벌어 지역 인재를 육성하는데 투자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뛰었다.

-사업 경영 측면에서의 사회공헌이 있다면.

▲전국 최초로 사회적 약자기업에 가산점을 주고, 사회 소외계층의 기부실적을 우대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 계약제도'를 도입·운영중이다. 2018년부터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기업에 가산점을 부여했고, 2019년에는 수의계약 시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기부실적 보유업체를 우대하는 계약방식을 적용했다. 3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시설공사 계약에도 공공기관 최초로 기부실적을 적격심사에 반영하고 있다. 금융기관과 협약을 맺고 20억 원의 전남행복동행펀드를 조성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저금리 대출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영업과 매출에 지장을 받는 소상공인까지도 추가지원을 확대해 지역 내 82개 기업에게 20억 원 전액을 대출 완료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